

이재명 “광주·전남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생태계 전환”

‘이순신 벨트’ 유세… 광양 제철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80년 5월 광주 있었기에 내란 극복…“텃밭 호남서 힘 보태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5일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의 산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양을 시작으로 여수, 순천, 목포 등 이른바 ‘이순신 벨트’ 유세에서 지역 불균형으로 열악한 광주·전남 산업 생태계를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 후보는 광양시 금호동 전남드래곤즈 축구장 북문 앞에서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지역이 재생에너지의 보고다”라며 “광주·전남은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해 살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기 5년 내에 모두 실현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그 기반만큼은 다질 것이라며 희망을 가져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광양의 대표 산업인 제철산업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남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가는 곳마다 5·18 정신을 강조하며, 지역민들에게 감사함과 함께 내란 종식을 위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1980년 5월 광주가 있었기에 지난 12월 3일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고맙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먹고, 죽은자가 산자를 살렸다. 호남 민중은 위대하다”며 5·18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5·18과 이순신 장군을 함께 언급하며 “이순신 장군이 백성들과 함께 죽음의 각오로 승리를 이끌어냈다”며 “결국 1980년 5월 군사독재에 국민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

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다. 민주당을 ‘호남의 자식’으로 규정하며 당의 뿌리인 이곳에서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여수에서 “호남에 있어서 민주당은 잘 되기를 바라는 큰 아들 같은 존재 아니냐”라며 “내가 이놈을 때려서 혼 내도 다른 사람이 때리면 절대 용서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한 번은 내쫓는다. 전에도 화끈하게 내쫓고 다시 불러들여 눈물 닦아주고 잘 다독겨주지 않았나”라며 “지난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했다.

그는 당시 조국혁신당에 패한 것을 거론하고 “약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많이 쓰더라. 그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한다”며 “잘 키운 자식이 효도하듯이 호남에도 민주당 때문에 별 별 날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자식이니까, 위기 국면이니까,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년시절을 보낸 목포를 마지막으로 전남지역 유세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 후보는 14일 부산·경남을 시작으로 15일 광양, 여수, 순천, 목포를 가로지르는 1박 2일 일정의 ‘국민 극복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를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오는 5·18민중항쟁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를 찾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스승의날인 이날 페이스북을 교육관련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교원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다”며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여수시 이순신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특별취재단=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이어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존중받도록 하겠다”며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아 교육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문수 때늦은 사과…“尹 계엄 부적절, 탈당 언급은 적절치 않아”

8:0 파면 결정 현재 매우 위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거듭 계엄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후보는 이어 “제가 미리 알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지방에 다니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가 더 안 된다고 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계엄도 체감할 원인 중 하나”라며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은 시종일관 확고하다”며 “제가 대통령이 돼서 비상대권으로 계엄 선포권이 주어져도 저는 극도로 다른 경우,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른 생각으로 행사하지, 쉽게 계엄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내란 동조’ 프레임을 씌우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내란당 아닌가”라며 “입법을 통한 내란당, 자기 범죄 혐의를 방탄하는 내란당이 더 사악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후보는 헌법재판소가 ‘8대 0’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계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 “현재에 관한 것은 여러 검토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8대 0이었다. 만장일치를 계속하는 건 김정은(북한)이나 시진핑(중국)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는 현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제가 ‘탈당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오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후보, 박우량 전 신안군수 언급 주목

“햇빛·바람 연금 토대 마련했는데…사소한 걸로 꼬투리 잡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박우량 전 신안군수를 거듭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전남지역 유세에서 광주와 전남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밝히면서 “개인적으로 박우량 군수를 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혀서 군수자리를 잃었다”며 “주민에게 편드를 만들어 수익을 썼는데 중앙 정부의 미움을 받은 것 같다. (정부가)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해가지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광양,여수 등지에서 박 군수를 언급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3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군수직을 잃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신안군의 햇빛·바람 연금

을 우수 사례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제일 큰 자연에너지는 태양, 바람으로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지역이 재생에너지의 보고다”며 “신안군은(재생에너지)를 조금 일찍 시작해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의 30% 지분을 주고 현재 연간 가구에 250만원 정도를 주고 있으며 곧 500만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안군은(햇빛연금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훌륭하지 않느냐. 박수 한 번 쳐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에서도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 사업의 30% 지분을 동네 사람한테 주라고 조례를 만들었다”며 “조례 때문에 정부와 신안 군수가 싸웠다. 요만한거 걸려서 아웃됐다. 안타깝다”며 박 전 군수를 언급한 바 있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SEoul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MARINE INSURANCE ASSOCIATION

IGAFA 보험GA협회
IGAFA 보험GA협회